各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大佛,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칠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 "우리들은 불교문화 포교사예요" 긍지 대단

◇김연숙 봉사자(불교회화실 담당 · 사진 왼쪽 빨간 옷 입은 사람)가 관람객들에게 통도사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탱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영축산 능선을 따라 핀 진달래가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를 찾은 이들을 반기던 15일, 환한 봄햇살속에 우뚝 선 통도사 성보박물관도 관람객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연건평 1천2백여 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에 불교회화실, 통도사 역사실, 기획전시실, 기증유물실 등의 전시실을 갖춘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매일 관람객을 맞기 위해서는 40명을 웃도는 인력을 필요로 한다. 박물관 직원 19명 외에 최소 20~25명의 인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계실, 전기실 등의 시설관리실과 학예연구원 등 정규 직원들만으론 대규모 박물관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보충된다.

◇지난 2000년 4월 11일, 김용사 괘불을 통도사성보박물관까지 옮기는 괘불이운 전통의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50여 기의 번(幡)을 들고 이운행렬에 동참한 모습.

## 26조 6개분과로 나눠 안내·유물 보호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에는 문화자원봉사회(회장 박해종)가 발족되어 각종 봉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1999년 3월 성보박물관 개관과 함께 탄생된 문화자원봉사회 회원수는 현재 890명. 이들 중 600여 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6개조 6개 분과로 나뉘어, 박물관 휴관일을 제외하고 일일 일조씩 입구 및 전시실 안내, 유물 보호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동절기엔 오후 5시, 하절기엔 오후 6시까지가 활동시간이다. 부산, 울산, 양산 심지어 대구에서 새벽부터 박물관으로 달려오는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8시 50분, 예불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전시실마다 2~3명씩 배치된 봉사자들은 환한 웃음과 친절로 관람객들을 안내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주된 활동은 유물 설명 및 전시실 안내. 하루 평균 1백명부터 많게는 하루 수천명을 안내하기도 한다.

15일, 7조의 불교회화실 담당 김연숙 보살은 신바람이 났다. 평소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전시실을 휘익 둘러보고 나가버리는 관람객 때문에 속이 상했던 김보살이 불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을 만났기 때문이다.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을 만나면 절로 신이 난다"는 김보살은 탱화에 쓰이는 안료부터 조명, 실내온도, 습도 등과 탱화 보존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끝낼 줄 모른다. 이것 저것 질문을 해가며 전시실을 둘러 본 이석현(포스코 에너지지부 근무)씨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안내자의 상세한 설명으로 많은 것을 마음에 담아 갈 수 있어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15일, 박물관대학 제2기 연구반에 입학한 불자들이 이재종(고려대 강사)씨의 '불교조각' 강의를 듣고 있다.

◇2000년 3월에 있은 제2기 문화자원봉사자 발대식 모습.

### 사찰 각종행사에도 앞장 직업·연령 계층 다양

문화자원봉사회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어, 일어 회화 가능자 50여명이 전담하는 통역과 외국인 안내 같은 전문분야 봉사부터 각종 행사시 허드렛일까지 봉사 영역은 무한하다. 괘불이운 의식 재현, 부도헌다제, 각종 전시 행사 준비 등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든 열성을 보이는 이들이기에 통도사나 박물관에 행사가 열리면 멍달아 바빠진다. 요즈음은 오는 4월 17일 보살계 수계산림과 함께 열리게 되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법회를 앞두고 행사준비로 통도사 나들이가 부쩍 잦아졌다.

봉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친 자원봉사회는 교사, 교수,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인적 자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봉사회로 꼽힌다. 포교사 자격을 갖춘 이가 250명이나 될 정도로 문화포교사로서의 자긍심도 대단한 이들은 수적인 규모뿐 아니라 역량과 자질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99년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에서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873개 문화기관 중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문화자원봉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봉사회로 꼽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1기 회원 모집 당시, 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하나라도 더 배워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게 수강생들의 설명이다.

15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는 2기 연구반의 개강식이 있었다. 이날 봉사를 맡은 7조의 이복동(부산 · 52) 보살은 연구반을 3년 개근으로 졸업한 1기생이다. 입구에서 신발 정리를 하던 이보살은 "배워가면서 봉사하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 늘어나고, 또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 참 즐겁다"며 배움이 곧바로 질높은 봉사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7조 조장 정무희(울산 · 55) 보살 또한 "박물관 문화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져 수지침, 불화그리기, 꽃꽂이, 다도 등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어 삶에 멋이 생겼다"고 자랑한다. "문화강좌에서 배운 다도로 부도헌다제때 차

통도사 문화자원봉사회
박해종 회장

"불교문화는 민족문화의 근간이며 민족의 얼과 지혜를 담고 있지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화포교사라는 긍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해종(56 · 삼강종합건설 대표)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회장은 박물관 자원봉사가 곧 문화포교 라고 역설한다. 890명이라는 대규모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박회장이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봉사자 한사람 한사람의 주인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이란다.

### "전통문화의 우수성 후손에 전하기 최선"

박회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친절하라'는 것. 가장 일선에서 관람객을 만나는 봉사자들의 태도가 박물관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청소년 관람객들에게 정성을 다하자'는 것.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심어주어 문화국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박해종 회장은 "앞으로 불교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깨달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작은 정성을 보태나가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 박물관개관과 함께 발족…회원 890명

◇ 지난 연말 열린 제1회 문화자원봉사자의 날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희기애애한 시간을 갖고 있다.

◇안남수(오른쪽) 정무희(가운데) 보살이 박물관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아 신발주머니를 건네고 있다.

3개월동안 박물관과 문화전반에 대한 강의를 이수한 456명에게 자원봉사자격을 준 것을 시작으로 신규 회원 가입시 정기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주고 있다. 또한 회원이 된 후에도 각 분과별 연수답사, 전체 임원진의 정기연수교육, 상하반기 정기교육 등 수시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계속된다. 특히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대학은 문화자원봉사회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비법이 숨어 있는 곳이다. 불교학, 불교미술, 문화재 전반 및 해외문화, 유적답사 등을 통해 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1년과정의 박물관대학을 수료하면 3년과정의 연구반에서 한국의 불상, 한국의 불화, 한국의 불교공예, 한국의 불교건축 등 보

### 정기연수 등 수시교육 역량·자질·열정 뛰어나

공양을 올렸다"는 안남수(50) 보살을 비롯 회원들은 배운 것을 적재적소에 회향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배운만큼 회향하는 것', 그것이 나누는 기쁨을 체험한 봉사회의 철저한 봉사철학이기 때문이다.

통도사 박물관장 범하스님은 "박물관에 소장된 훌륭한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는 일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달려있다"며 "봉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6일부터 3일간 상반기 정기교육이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타박물관 견학 및 사찰 순례등의 연수를 계획중이다. 또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회화교육 등 종단차원의 교육지침에 따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소양을 쌓게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문화를 전하는 문화포교사들인 자원봉사자들을 더욱 실력있고, 친절한 구성원으로 가꾸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양산=천미희 기자 mncheon@buddhapia.com

스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은 소득이 없어 카드 심사에서 번번이 제외 되신다고요?
부다피아 하나 카드는 스님께 우선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동국대 병원 의료비 5~20% 할인 !!

조계종 스님은 물론 다른 종단 스님이라도 부다피아 하나카드를 소지하신 분이면
누구나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해당됩니다.)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